

# 「崔致遠」과 중국 “人鬼遇合” 이야기의 비교 연구\*

曾天富\*\*

## 目 录

1. 머리말
2. 『太平廣記』 소재 人鬼遇合 모티프의 중국소설
3. 「최치원」과 「崔書生」, 「顔滄」
4. 맺음말

## 1. 머리말

전기소설로 알려진 「崔致遠」은 『太平通載』<sup>1)</sup> 소재 『殊異傳』<sup>2)</sup>의 일문으로 동일 소재 12편의 일문이 가진 민간전승의 구전 설화적 성격과는 달리 소설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한국 서사문학사의 발전경로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치원」의 서사문학적 위상은

\* 이 논문은 2015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5-OLU-2250002).

\*\* 台灣 政治大學韓文系教授.

1) 『太平通載』는 조선 전기 成任이 편찬한 잡록집으로 전체 분량은 240권 80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5권 2책만 전해진다. 내용은 고금의 異文을 수집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조 성종 전후의 사대부들이 경전 뿐 아니라 잡록으로 다양한 지식을 습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殊異傳』의 원명은 『新羅殊異傳』으로 통일신라시대의 민간 설화집이며 지은이에 관해서는 朴寅亮, 金陟明, 崔致遠 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모두 불확실하다. 일반적으로 민간 구두 전설을 소재로 신라 문인이 편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려시기를 거쳐 조선조 초기까지 유통되었으나 일실되었고 현재 『三國遺事』, 『太平通載』, 『大東韻府群玉』 등에 轉載되거나 節錄되어 전해진다.

크게 설화로 보는 견해와 전기소설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후자가 월등히 많으며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줄곧 제기되어 왔다.<sup>3)</sup> 이런 이유로 한국 고전소설의 첫 작품으로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이는 원래 고전소설의 효시로 알려졌던 김시습의 『금오신화』보다 5백년 남짓 빠른 시기로 한국 고전소설의 발생을 나말여초로 약 5세기나 앞당긴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희병은 최근에 「최치원」을 발생기 한국소설의 대표작으로 거론하면서 그 이유를 「최치원」의 소설적 요소, 예를 들어 인물과 환경의 구체적인 묘사와 서술, 인물의 변화에 미치는 시간의 영향, 주인공의 미적 특질, 창작 상의 목적의식, 감각적이며 화려한 문체 등이 소설의 전 단계인 설화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찾았다. 이밖에도 그는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략 7세기에서 10세기에 전기소설과 모노가타리 문학이 성립되어 이후 성숙한 고전소설로 발전해 갔다는 동아시아적 관점을 들면서 한국만 유독 15세기로 뒤쳐졌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전기소설이란 장르가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일본에서 모두 창작되거나 향유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보편적 소설양식이라는 점을 들었다.<sup>4)</sup>

만약 이런 관점을 수용한다면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학현상이라는 보편성 이외에 한자문화권내의 문화이동과 전파현상, 특히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적 영향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많은 고전소설의 연구에서 중국소설과의 직, 간접적 영향관계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최치원」과 중국 전기소설과의 관련성 역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조수학은 당대 염정류 전기소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遊仙窟」과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그 영향을 받은 한국 소설의 현전작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했으며, 그 근거로

3) 문흥구, 「『殊異傳』 逸文 <崔致遠>의 再考察」, 『古小說研究』 제6집(국학자료원, 1998.12), 64-69쪽에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가 소개되어 있다.

4) 박희병, 「한국 고전소설의 발생」,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돌베개, 2005), 34-59쪽.

두 작품에서 남주인공이 현실계의 인물인데 비하여 여주인공은 冥幻界의 인물이며,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心事의 술회나 애정의 전달이 대화보다는 시로써 표현되는 점, 두 남주인공의 관직이 縣尉라는 점, 여주인공을 지칭하는 명칭이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sup>5)</sup> 또 이상구는 『太平廣記』 소재의 지괴소설 「蕭曠」과 「沈警」, 그리고 당전기 「遊仙窟」과의 관련성을 줄거리의 유사성, 시귀의 유사성, 동일한 변려문 사용 등을 들어 설명했다.<sup>6)</sup> 또한 劉廣銘은 『列仙傳』 소재 「江妃二女」, 『搜神記』 소재의 「天上玉女」, 『續齊諧記』 소재의 「清溪廟神」과 「仙女紅袋」 간의 관련성을 제기했다.<sup>7)</sup>

이렇게 「최치원」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작가의 고증에서부터 중국소설과의 관련성, 문체적 특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는데, 실제로 전해지지는 않지만 徐居正의 『筆苑雜記』, 成任의 『太平通載』, 權文海의 『大東韻府群玉』 등에서 보이는 '新羅殊異傳'이란 기록과 최치원 자신이 창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sup>8)</sup> 있으므로 「최치원」은 9세기 후반에 씌어졌을 것으로 그 성립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sup>9)</sup> 또한 「최치원」은 원출처가 『수이전』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비록 역사적인 인물인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이야기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이함의 핵심은 범세의 남성과 저승의 여귀가 우연히 만나 사랑을 나누고 인

- 5) 曹壽鶴, 「崔致遠傳의 小說性」, 『嶺南語文學』 2집(嶺南大學校國文科, 1975), 92-107쪽.
- 6) 이상구, 「나말여초 전기의 특징과 소설적 성취 -唐代 志怪 및 傳奇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배달말』 30(배달말학회, 2002), 317-346쪽. 이 밖에도 최치원과 유선굴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로는 차용주, 「쌍녀분 설화와 유선굴과의 비교연구」(어문논집 23, 고려대, 1982)와 한영환, 「최치원전과 유선굴의 비교연구」(인문과학연구 7, 성신여대, 1987) 등이 있다.
- 7) 劉廣銘, 「〈仙女紅袋〉故事: 原型與流變」,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27권4기(2004.7), 111-114쪽.
- 8) 수이전의 典據와 저술자에 대한 논의로는 曹壽鶴, 「殊異傳의 著述者 및 文體考」, 『한민족어문학회』 17집(1990.6), 5-26쪽을 참고. 최치원이 저자라는 견해는 李劍國, 崔桓의 논문 「〈新羅殊異傳〉崔致遠本考」(『중국어문학』, 1999.6, 289-325쪽)에 있는데 주로 『桂苑筆耕集』의 文風과 비교, 대조하여 최치원이 지은 것으로 판단했다.
- 9) 창작시기는 李劍國, 崔桓의 전제논문 참고.

연을 맺은 이야기 내용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이 무덤 속 여성, 즉 여귀와 인연을 맺은 남성의 이야기인 人鬼遇合 모티프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중국소설에서 등장한 것이기도 하다.

본문은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공통성과 광범위한 영향관계, 최치원의 留唐 경험, 「최치원」이 가지는 전기적 성격에 기초하여 「최치원」의 저술자가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유전되던 人鬼遇合 모티프를 차용했을 가능성을 찾아보고, 서사 형식과 인물 형상에서 보다 근접된 면모를 보여주는 두 편의 중국소설과의 상관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고래로부터 전해져 오는 중국의 人鬼遇合 이야기는 『太平廣記』에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문은 이를 대상으로 「최치원」과의 관련성을 사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최치원」의 형성 기원에 대한 고찰은 물론이고 한국 서사문학의 발생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중국과 한국 소설 간의 관련성과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 『太平廣記』 소재 人鬼遇合 모티프의 중국소설

중국 六朝시대부터 宋代에 이르기까지 志怪와 傳奇 중에 전해지는 人鬼遇合의 이야기는 매우 많으며 후대 소설에 대한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 이는 중국 고대소설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 기이함을 추구하는 지괴소설에서 대량 창작되었고 唐傳奇에 이르러 유려한 문체와 결합하여 중국 고전소설의 한 유형을 이룬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지괴에서 전기까지의 人鬼遇合 이야기는 송대 초기에 편찬된 소설총집 『太平廣記』<sup>10)</sup>

10) 『太平廣記』는 중국 송대 李昉 등이 편찬한 방대한 분량의 고대 소설집으로 漢代로부터 북송 초에 이르기까지 여러 典籍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채록해 전 500권 92항목 7000여조에 달하는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고대 민간풍속과 위진남북조의 志怪소설에서 唐代의 傳奇에 이르기까지 망라하고 있어 송대 이전 중국 고소설의 변천과 발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에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sup>11)</sup> 따라서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최치원」의 人鬼遇合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태평광기』 소재의 人鬼遇合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의 婚配型 이고 하나는 偶合型이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남주 인공이 현실 속 사람이고 여주인공은 실존하지 않는 귀신 혹은 혼령이며 그 반대의 경우는 매우 드물다. 婚配型은 또 인물의 생사여부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는데, 먼저 이승과 저승에 사는 두 사람이 혼인하는 경우로 여귀와 만난 남성이 생명에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 쪽 가족으로부터 사위로 인정받는 내용이다. 316권의 「談生」, 319권의 「張子長」, 343권의 「竇玉」등이 이런 유형으로 앞의 두 소설에서는 여성이 아이까지 낳지만 환생하지는 못하는 내용이 나온다. 만남 후 남성이 죽어 음계에서 혼인하는 경우는 334권의 「王乙」, 333권의 「季攸」, 342권의 「鄭德懋」등에서 볼 수 있고, 여귀가 부활하여 양계에서 혼인을 하는 내용은 330권의 「張果女」, 375권의 「徐玄方女」, 152권의 「鄭德璘」, 339권의 「李元平」, 274권의 「韋臯」등에서 볼 수 있다. 婚配型 소설에서는 人鬼遇合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이를 출산하거나 혹은 합장을 통해 쌍방가정의 인정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유형은 偶合型으로 만남의 시간이 비교적 짧고, 만남 후에 다시 이별하는 내용이다. 만남의 목적과 만남 후의 상황에 따라 사랑에 치중하는 경우와 욕망에 치중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이미 알던 사이가 많고 후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사랑에 치중한 경우는 여귀가 이전의 애인이거나 죽은 아내인데 316권의 「韓重」, 340권의 「李章武」, 354권의 「李茵」, 332권의 「唐暉」, 283권에 실린 「許至雍」 등이다. 이들 이야기는 생사도 갈라놓지 못하는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는데, 이런 유형의 이야기에서 人鬼遇合의 주요 목적은 바로 사랑의 완성에 있다고 하겠다. 偶合型의 두 번째 유형은 사랑보다 성적 욕망과 관련된 만남으로 두 사람은 서로 알지

11) 『太平廣記』의 귀신 이야기는 모두 40卷(卷316-卷355)에 달하며, 鬼詩가 등장하는 당대 소설도 44편에 이른다.

못하는 사이인데, 317권의 「吳祥」, 324권의 「秦樹」, 326권의 「長孫紹祖」, 334권의 「河間劉別駕」 등의 이야기가 이에 속한다.<sup>12)</sup>

『태평광기』에 실린 이러한 몇 가지 유형의 人鬼遇合이야기 중에서 두 남녀 인물이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혼인에 이르지 않고 바로 이별하는 점 등은 「최치원」과 비슷하다. 이를 살펴보면, 偶合型 이야기 중에서도 생면부지의 관계로 설정된 두 번째 유형이라 하겠다. 하지만 詩歌의 첨가와 기타 줄거리를 비교하여 상관성이 발견되는 다른 유형의 이야기도 함께 고찰하면서 「최치원」과 비교하기로 한다. 「최치원」의 문체적 특징과 서사 형식의 독특성은 대량의 시를 포함하고 있는 산문과 운문의 併記를 들 수 있는데, 시를 통한 인물의 심리묘사가 가능함은 물론 작자의 文才를 유감없이 드러낸다는 점에 있어서 傳奇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선 대량의 시를 제외하고 줄거리만을 축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최치원은 字가 孤雲으로 12세에 唐에 유학 갔는데 과거에 급제하여 溧水縣의 縣尉가 되었다. 그는 한번 이 고을의 남쪽 招賢館에 가서 놀았다 ② 초현 관 앞에는 雙女墳이라 불리는 오래된 무덤이 있었는데 고금의 名賢들이 유람하는 장소였다. 치원이 그들의 혼을 위로하는 시를 석문에 쓰고 돌아왔다. ③ 한 여자가 홀연히 나타나 팔낭자와 구낭자의 딸이라 하며 화답시를 가져왔다. 치원이 누군지 묻자 崔攄이라는 시녀로 치원이 시를 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④ 치원이 두 낭자의 만나자는 청을 받아들이고 저녁이 되자 매우 어여쁜 두 낭자가 나타나 자신들은 張씨집 여식들인데 부친이 정한 혼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다가 병이나 요절하게 되었다는 사연을 말해주었다. 치원과 두 낭자는 서로 시로써 화답하고 崔攄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흥을 돋우었다. ⑤ 치원이 두 낭자와 동침하고 운우지정을 나누었다. ⑥ 새벽이 되자 두 낭자가 역시 시로써 작별을 고하고 사라졌다. ⑦ 치원이 아침에

12) 이에 대해서는 曾禮軍, 「『太平廣記』人鬼遇合故事의 主題類型與文化蘊涵」,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제15권제4기, 2013.8, 31-35쪽을 참고.

무덤가로 가서 시를 지어 회상했다. ⑧그 후 신라로 돌아와 부귀영화의 무상함을 느끼고 경치 좋은 곳에 머물면서 탈속한 삶을 살았다.

그럼, 「최치원」에서 보이는 남성 주인공과 여귀의 관계, 만남의 과정과 목적, 이별의 방식과 후일담, 서사의 특색 등에 유의하면서 『태평광기』 소재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吳祥(卷317 鬼2, 원 출처인 『法苑珠林』은 唐總章 원년(668)에 道世가 지은 것으로 불교문헌으로 알려져 있다.)

①縣吏인 吳祥이라는 사람이 번거로운 일을 피하고자 깊은 산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다. ②시냇가에 이르러 날이 어두워졌는데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를 만나 기뻐하며 따라갔다. ③집이 매우 가난했지만 그녀는 밥을 해 주었고 저녁이 되자 멀리 사는 노부인이 와서 張姑子라고 불렀다. ④날이 밝을 때까지 동침하고 닭이 울자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었다. ⑤여자는 吳祥에게 보라색 수건을 주고 吳祥도 여자에게 수건을 증표로 주었다. ⑥시냇가에 이르러 밤새 물이 불어 건너갈 수가 없게 되어 다시 돌아가 그 여자를 찾았는데 그곳은 허물어진 무덤이었다.

(2)秦樹(卷324, 鬼9, 원 출처인 『甄異錄』은 쯤나라 戴祚작으로 이 책은 이미 일실되었고 魯迅의 『古小說鈎沉』에 輯本이 남아있다.)

①沛郡사람 秦樹는 집이 曲阿小辛村에 있었는데 한 번은 경성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20여리 떨어진 곳에서 날이 저물어 길이 보이지 않았다. ②멀리 불빛이 보여 달려갔는데 집이 한 채 있고 여자가 촛불을 들고 나와 혼자 살기 때문에 손님을 들일 수 없다고 했다. ③秦樹가 날이 어두워 어쩔 수 없으니 바깥방이라도 빌려달라고 사정했다. ④허락을 얻어 들어가 보니 방이 하나 밖에 없어 그녀의 남편이 돌아올까 두려워 잠이 들지 못했다. ⑤여자가 혼인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밥을 차려 주는데 오래 놓아둔 것 같았다. ⑥秦樹가 혼인하자고 제의하고 함께 잠들었다. ⑦아침이 되어 길을 떠나려 하자 여자가

슬퍼하며 한 쌍의 반지를 秦樹의 옷에 묶어 매듭을 만들어 주었다. ⑧십여 보를 떠나와 뒤돌아보니 어제 밤에 묵었던 곳은 허물어진 무덤이었고 며칠 후 그 반지는 잃어 버렸지만 그 매듭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3)長孫紹祖(卷326, 원 출처인 『志怪錄』은 唐대 陸勳이 지었으며 咸通12년(871)에 兵部員外郎을 지냈다.)

①紹祖는 陳蔡일대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날이 어두워져 길가에 있는 집에 하루 밤 묵기를 청했다. 집 안에서 공후를 타는 소리가 들려 훑쳐보니 매우 아리따운 소녀가 밝은 촛불 아래 앉아 있었다. ②소녀가 웃으며 들어오게 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음식에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③여자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며 함께 하루 밤을 지냈고 자신의 시녀를 紹祖의 노복과 자도록 했다. ④날이 밝자 여자가 紹祖와 이별하며 금이 박힌 작은 상자를 증표로 주었다. ⑤紹祖가 백여 걸음 나와 뒤돌아보니 작은 무덤이어서 창망하게 떠나갔다. 그녀가 준 상자 안에는 먼지만 쌓여 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쓰던 물건이 아니었다.

(4)河間劉別駕(卷334, 원 출처인 『廣異記』는 당대 초기에 나온 지괴전기 소설집으로 唐대 戴孚라는 이가 大曆 年間(766-779)에 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河間에 사는 劉別駕는 평소에 마음에 맞는 여자가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②西京 通化門을 지날 때 수레에 탄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마음에 들어 그녀의 집까지 따라갔다. ③부인이 여러 날을 머물게 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④한밤중에 이불을 몇 겹 덮어도 여전히 따뜻해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⑤그 후 어느 날 날이 밝았는데 부인과 집이 갑자기 사라졌고 자신이 황폐한 정원의 낙엽더미에 누워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이 들었다.



(5)鄭德懋(卷334, 원 출처인 『宣室志』는 唐代 張讀(835-882)이 쓴 지괴소설집으로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과보응 관념을 선양하는 내용이 많다.)

①滎陽에 사는 鄭德懋가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한 비녀를 만났는데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②비녀가 앞에 와서 최씨 부인이 맞이해 오라한다고 말을 전하자 모르는 사람이고 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하여 거절하려하자 노란 옷을 입은 열 여명의 남복들이 와서는 그의 말을 끌고 가 높은 문과 담이 있고 담 바깥에 오동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에 이르렀다. ③鄭德懋가 문 밖에서 있으니 비녀가 청해서 안으로 들어갔다. ④몇 개의 문을 지났는데 누각이 장관이고 한 부인이 푸른 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나이는 사십 정도로 보였다. ⑤시녀들도 모두 좋은 옷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고 鄭德懋가 인사를 하자 자신의 딸과 혼인해 달라고 했다. ⑥鄭德懋가 할 수 없이 허락하자 좋은 술과 좋은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매우 청결하고 화려했다. ⑦밤이 되자 소녀가 나왔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혼인을 하고 백 여일을 머물렀다. ⑧鄭德懋가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소녀가 음계와 세간이 다르므로 그럴 수 없다고 하여 삼년 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떠났다. ⑨부인이 입던 붉은 옷과 금비녀를 증표로 주고 작별했고 鄭德懋가 집으로 와 보니 자신이 탔던 말이 스스로 돌아왔다고 하기에 묵었던 곳을 찾아보니 큰 무덤이었고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⑩부근 사람들이 말하기를 최씨 부인과 그녀의 딸이라고 하자 자신이 삼년 후에 죽을 것임을 알았는데 과연 그러되었다.

이렇게 『태평광기』 소재의 人鬼遇合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승의 남성과 저승의 여성과의 만남과 이별, 荒墳의 등장을 통해 여성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는 내용이다. 또한 남성은 대부분 재능과 학식을 갖추거나 관직을 가진 사대부로 이야기 속 여성들에게 인격과 문재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지고 여성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동침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등 여성을 성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동시에 여성은 하나같이 아름다우며 남성에게 구애하거나 혹은 남성을 거부하지 않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와 인물 형상은 「최치원」과 동일하다. 이들 이야기의 원 출처를 찾아보면, 각 이야기가 실린 소설집의 편찬시기가 이른 것은 짧게는 唐代로 모두 「최치원」보다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의 작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기는 하지만, 최치원 자신이 썼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가 당에서 체류한 17년간 수학, 과거 응시와 급제, 관직 역임 등의 경력으로 보아 이와 비슷한 경력의 소유자나 혹은 이에 대해 잘 아는 작자가 당시 중국에서 유전되던 소설집을 접촉했거나 간접적으로라도 들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하겠다. 또한 「최치원」의 전기적 성격에서 제기되는 시가의 대량 삽입은 당전기의 주요특성 중 하나로 작자의 文才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인데 이는 당전기가 濫卷으로 사용된 것과도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흥미를 끝만한 기이한 이야기나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주요한 창작 소재가 되기도 했다. 작자를 최치원이라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작자가 상당한 문학적 소양을 가진 문인일 가능성과 중국의 관습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당전기 중에는 현실성과 필진성을 높이기 위해 작자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sup>13)</sup> 비록 이런 이유로 최치원을 작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치원」의 전기적 성격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된다 하겠다.

### 3. 「최치원」과 「崔書生」, 「顏濬」

위절에서 검토한 대로 이들 『태평광기』 소재의 人鬼遇合이야기는 비록 「최치원」과 동일 모티프를 가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간단한 즐거이 위주의 지괴소설에 속하는 것으로 서사의 곡절, 분위기와 인물심리의 묘사 등에

13) 대표적인 인물로는 沈亞之의 自述體 삼인칭 소설을 들 수 있다.

서 「최치원」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보다 접근된 동일 소재 두 편의 소설을 통해 서사형식과 인물 묘사에서의 유사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太平廣記』 卷339, 鬼24에 수록되어 「崔書生」이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최서생은 長安 永樂里에 살고 있었다. 조상의 가업이 渭南에 있어서 貞元년간 청명절에 위남으로 간 적이 있는데 황폐한 무덤 사이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어 말을 쉬게 하고 있었다. 백여 걸음 떨어진 뒤에 진한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잡초 우거진 곳을 헤매는데 마치 길을 잃은 듯했다. ②최생이 다가가니 그 여자는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당황하여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이에 최생이 동자를 시켜 보게 했더니 아리따운 이팔청춘의 남자였다. 동자를 통해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왜 혼자서 무덤가를 헤매느냐고 물어보라 하니 대답하지 않았다. ③다른 동자를 시켜 노복과 말을 쓰라고 하니 그제서야 돌아보며 받아들였다. ④최생이 말을 타고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니 시녀들이 그녀를 맞았고 그중 나이 많은 시녀가 술 취한 아가씨를 데려다 주어 감사하다며 쉬어가라고 청했다. ⑤최생이 따라가니 매우 아름다운 건물에 향기가 자욱했고 더 많은 시녀들이 나와 아가씨를 영접해 들어갔으며 여주인이 자신의 조카를 구해주고 데려다 주어 감사하다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조카인 왕씨 소저가 모시기를 원한다고 했다. ⑥최생도 호방한 사람이라 허락하고 삼일 간 기거하며 즐겁게 지냈다. ⑦왕소저의 이모인 주인 玉姨는 술 내기를 좋아해서 이기면 최생으로부터 입술연지합을 따고, 지면 최생에게 옥반지를 주었다. ⑧어느 날 홀연 온 집안사람들이 도적이 왔다고 떠들 때 최생은 뒷문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나와 보니 자기가 동굴에 있고 집은 온데 간데 없었다. ⑨하지만 술내기에서 탄 옥반지는 여전히 옷고름에 묶여져 있었고 처음 미녀를 따라갔던 곳으로 가니 노복이 묘혈을 파헤쳐 관을 꺼냈는데 그 위에 이름이 써져 있고 관을 열어 보니 술내기에 저서 준 입술연지합이 들어 있었다. 무덤의 주인은 後周趙王의 여식이며 평소에 조카인 왕소저를 아꼈는데

왕소저가 죽자 자신이 죽으면 같이 묻어 달라했다고 한다. ⑩노복에게 영문을 물으니 노복이 숲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아 찾아와 묘혈을 발견한 것이라 했다. 도적은 바로 이 노복을 말하는 것으로 최생이 이에 그녀들에게 감사하고 즉각 원래대로 묻었다.

「崔書生」 이야기는 『태평광기』에 그 출처가 『博物志』로 나와 있는데 이는 고대의 신화와 지괴를 모아둔 소설집으로 西晉 張華(232-300)가 편찬한 것이며, 이 이야기는 또 唐代 常沂가 지은 『靈鬼志』에도 실려 있다. 常沂의 생몰 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代宗 大曆8년(773)에 진사 급제했다고 한다. 그런 것으로 보아 이 이야기는 西晉 시기부터 있었는데 그 이후 각종 전적에 전래되어 전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최서생과 왕소저의 만남은 우연이지만 玉姨의 주선으로 동침하게 되는데 아마도 어린 나이에 죽은 조카를 배려한 행동일 것이며 여기에서 음계의 여성들의 사연이 遇合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주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장황하게 그려지는데 이러한 점은 앞 절에서 보았던 짧은 이야기에서는 거의 없는 부분이다. 즉 서사가 길어지면서 음계 여성들의 사연과 만남 후 동침 전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 오는데 하나는 人鬼遇合 이야기의 주체가 음계의 여성이라는 점과 두 남녀 주인공의 만남이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어 이별 후 상황의 서술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崔書生」을 「최치원」과 비교하여 볼 때 비록 만남의 방식은 다르지만 두 명 이상의 음계 여성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기거하는 곳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음주와 대화를 통해 동침 전 여성에 대해 알게 되는 설정 등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 하겠다. 특히 雙女墳이란 점에서 다른 이야기보다 「최치원」에 근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태평광기』 권350에 실려 있는 「顏瀆」로 원출처는 唐 裴鉞이 지은 『傳奇』이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①唐 會昌 연간 진사 顏濬이 낙방한 후 廣陵을 유람할 때 있었던 일로 작은 배를 세내어 白沙에 가는데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그와 같은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 20여세 남짓에 목소리가 청아하여 이름을 물어보니 趙幼芳이며 같은 곳에 간다고 했다. ②顏濬이 기뻐하며 배가 정박할 때마다 술과 고기, 과일을 사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녀는 陳, 隋朝년간의 옛날이야기만 했다. 그가 호기심을 느껴 놀리면 화를 내면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③白沙에 도착한 후 배를 갈아타는데 그 여자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어울리는 신선을 소개할 테니 7월 15일 瓦官閣에 놀러 오라고 청했다. ④그날 그곳에 당도하자 미인이 두 명의 시비를 데리고 나타나 顏濬이 정신없이 보다가 책망을 당했다. 미인이 가르쳐 주는 승방에 이르자 幼芳이 있었고 顏濬은 미인과 인사를 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⑤날이 저물자 미인이 오늘 유람한 누각이 곧 허물어질 것이기에 특별히 작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다. ⑥顏濬이 幼芳과 함께 당도하니 몇 명의 시녀가 촛불을 들고 마중을 나오고 옆집의 孔씨 소저도 청해 와서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모두 陳朝의 지난 이야기라서 顏濬이 미인의 성씨와 출신지를 물었다. 그러자 자신은 陳朝의 張貴妃이고 공씨 소저는 孔貴嬪이라고 하면서 진조가 망하기 전에 임금의 총애를 얻었으나 망국 후에 楊廣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했다. 幼芳은 원래 貴妃의 시녀였는데 망국 후 隋朝의 궁녀가 되었다고 했다. ⑦그녀들은 각자 시를 지어 감회를 풀고 顏濬도 이에 시로써 화답했으며 다른 손님들도 찾아와 서로 즐기다 닭이 울자 돌아갔다. ⑧그런 후 張貴妃와 顏濬은 동침하고 날이 밝자 귀비가 그에게 비녀하나를 주면서 이를 보고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하며 헤어졌다. ⑨顏濬은 상실감이 들어 다시 만났던 자리에 가 보았는데 송백이 무성한 폐허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陳朝의 宮人墓라고 했다. ⑩顏濬이 비통해 하면서 돌아왔고 몇 달 뒤 瓦官閣이 허물어졌다. 이후 그는 廣陵에 가서 수양제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과연 궁녀인 趙幼芳의 묘가 있어 술을 뿌려 제사를 지냈다.

이 이야기는 「崔書生」과 비교해 볼 때 이야기 속 상황에서 여성들이 양계의 사람들이 아님을 남주인공이 알고 있으며, 여러 명의 여성들과 飲酒와 詩歌로 화답하는 광경<sup>14)</sup>,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신세와 사연을 듣게 되는 부분, 그리고 남성 인물을 인도해 주는 시비가 등장하고 시비의 아름다움에 남주인공이 회롱하는 장면이 나오며 시비의 용모를 보고 그 주인의 미모를 기대하는 남성 인물의 심리 등등이 「최치원」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다음날 다시 찾아가 만남을 회고하고 그 후에도 다시 무덤 속 여성의 무덤을 특별히 찾아가 보는 등 음계 여성과의 관계가 남성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최치원」과 비슷하다. 다만 『태평광기』 소재의 人鬼遇合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만남의 증표 혹은 신물은 「최치원」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최치원」에서 남성인물이 처음부터 雙女墳 속 여성임을 알고 만났기 때문에 신물로 무덤의 주인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최치원이 귀국 후 탈속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과 증표나 신물로써 인연에 연연해하는 내용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두 소설은 이미 전기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약 당전기의 문체 규범을 史述의 사실 기록적 준칙에서 벗어나 허구성을 가미하여 문학적 진실에 도달했고, 세부적인 묘사로 인물 형상화를 달성했으며, 객관적인 묘사로 세밀한 일상을 그려내었고, 詩賦의 삽입 등 韻文, 駢文句의 대량 운용으로 抒情化, 諧謔化의 풍격을 보여주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sup>15)</sup> 이 두 소설은 人鬼遇合 모티프의 일치에서뿐만 아니라 전기적 성격의 공유에서 「최치원」과 상당히 흡사한 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4) 지괴소설에서 삽입시의 출현은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미 나타났지만 그 편수는 많지 않고 당전기에 이르러 대폭 증가했다.

15) 崔末順, 「唐傳奇與辭賦關係之考察」(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系碩士論文, 1997.6), 28쪽.

#### 4. 맺음말

「최치원」과 중국소설의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지괴 소설에 속하는 「蕭曠」, 「沈警」과 전기로 분류되는 「遊仙窟」 등이 그것이다. 최치원의 留唐 경험과 창작시기로 볼 때 육조부터 당에 이르는 시기의 중국 소설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중에서도 「최치원」의 주요내용인 人鬼遇合 모티프를 가진 이야기는 이 시기에 지괴와 전기의 형태로 이전부터 유전되던 내용이 소설화 과정을 거쳤고 많은 문집과 소설집에서 轉載되고 있었다. 작자를 꼭 최치원으로 추정하지 않더라도 그의 행적을 잘 아는 문인이라면 이러한 중국소설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런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앞 절에서 열거한 중국의 人鬼遇合 이야기와의 관련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작품을 구성하는 내적 요소를 보면, 「최치원」에서 남성 주인공이 縣尉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대부란 점, 우연히 雙女墳에 이르러 그녀들을 위로하는 시를 지음으로써 시비를 통해 음계 여성들의 초청을 받는 점, 동침 전에 酒宴과 賦詩로 서로 알아가는 과정, 여성들이 자신의 이승에서의 안타까운 사정을 말하는 부분, 여성의 요청과 남성의 허락의 과정을 거친 후 동침하는 점 등은 위에서 살펴본 중국소설에서 모두 등장하는 요소이다. 人鬼遇合 모티프의 중국소설에서 남성 인물의 형상과 신분은 육조지괴에서 당전기로 갈수록 개성화되는데 「최치원」은 아마도 이미 존재하던 이런 유형의 이야기 속 남성 인물의 형상을 차용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 만남의 계기에서도 남성 인물의 학식과 인격이 인정받을 것이 관건인데 중국소설에서도 동일 내용이 등장한다. 시의 대량 운용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소개한 육조지괴에서 당전기에 이르는 人鬼遇合 이야기와 「최치원」은 인물의 형상, 만남의 계기와 방식, 사연을 지니고 있는 여성인물의 구애, 酒宴과 賦詩, 동침과 이별, 이별 후의 행적이 드러나는 점 등에 있어서 많은 유사성이 발견된다 하

졌다.

이런 점을 통해 「최치원」은 그 이전에 중국에서 널리 유포되던 다양한 人鬼遇合 모티프 이야기의 요소 중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방식을 차용, 내지 참고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치원」의 주제와 소설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견이 나와 있지만<sup>16)</sup> 기본적으로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傳記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 傳奇의 허구적 내용을 삽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중간에 삽입된 傳記적 내용은 최치원이란 인물의 실제적 사실과 기록에 부합되고 그의 文才를 드러내는 詩作의 대량 등장 같은 傳奇적 성격이 가미되었으며 아리따운 여성들의 기구한 사연을 대량의 詩歌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으로 만남이 끝나는 것,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이는 태도 등에서 중국소설과 달라지는 부분이 설명된다고 하겠다. 이런 점은 이별 후의 그의 인생관과 행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최치원이 이국에서 가졌을 고독함과 동일하게 자신의 뜻대로 인연을 만나지 못한 여성들과의 만남과 불가항력적인 이별은 그의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때 「최치원」이 전달하는 내용과 어긋나게 느껴지는 인물의 경박한 태도, 즉 남성 주인공이 시비를 희롱하는 내용 등은 오히려 동일 모티프의 이야기에서 온 영향의 흔적, 즉 여귀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일련의 중국 소설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양계의 남자와 음계의 여성의 만남과 사랑을 다룬 人鬼遇合 이야기는 그 탄생시기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인류 문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의 人鬼遇合 이야기가 인류의 귀신숭배사상, 출산과 부활에 대한 희망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괴를 거쳐 전기에 이르면 人鬼相戀 혹은 人鬼相婚은 唐代의 엄격한 문벌제도와 혼인제한 등에 대한

16) 「최치원」의 주제와 소설성격에 대해서는 박일용, 「〈최치원〉의 형상화 방식과 남녀 주인공의 성적, 사회적 욕망」, 『한국고전연구』23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11.5), 5-32쪽 참고.



반향적 정서와 동시에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sup>17)</sup> 현실에서 불가능한 혼인의 대상인 명문가 귀족 딸이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 오히려 남성인물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현상의 문학적 반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人鬼遇合 이야기의 전기적 면모라고 하겠다.

그러나 「최치원」에서는 음계 여성과의 만남과 하룻밤이 남성인물의 인격 완성 혹은 향후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체험이 되고 있다. 이는 혼인을 통한 신분상승이란 남성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는 중국 전기 속의 내용과는 다르다. 최치원의 실제 삶을 고려할 때 과거 급제 후 고국인 신라로 돌아왔으므로 중국 문인들이 갖는 사회적 제도와 관습의 구애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최치원」은 소설 속 인물인 동시에 실제인물인 최치원의 향후 인생행적, 즉 부귀영화의 허무함을 설파하고 탈속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창작되었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구애는 못 다한 인연이나 사랑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최치원」에서는 부친이 안배한 혼인을 거절하다 마음의 병을 얻어 요절한 雙女墳 여성들에 대한 위로가 만남의 계기이며 동시에 만남의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역시 남성 인물의 인격적인 완성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최치원」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중국소설의 일정한 영향아래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문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蕭曠」, 「沈警」, 「遊仙窟」 이외에 「최치원」 이전에 유전되던 중국 지괴와 전기에서 人鬼遇合 모티프를 가진 소설을 찾아 「최치원」과의 상관성을 찾아보았다. 그 증거를 들면, 작품 내적 요소로 이승의 남성, 저승의 여성이란 조합, 우연한 만남과 남성 인물에 대한 인정의 과정, 매개자인 시비의 등장과 인도, 酒宴과 賦詩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장면, 여성들의 신세에 대한 하소연, 여성들의 적극적 구애와 동침의 의향 타진, 짧은 만남과 긴 이

17) 田英宣, 「紙上畫魂, 情曲現實- 唐代人鬼戀小說創作心理探微」, 『五邑大學學報(社會科學版)』 10권3기(2008.8), 38-41쪽.

별, 이별 후의 특정한 행적 등에서 중국소설과 일정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작품 외적 요소로는 최치원의 留唐 경험과 관직생활 등을 잘 알고 있는 문인을 작자로 상정할 경우 그가 중국에서 전해지던 각종 문집과 소설집에 轉載되고 있던 人鬼遇合 이야기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최치원의 과거응시 체험을 고려하여 溫卷으로 창작되고 유전되던 전기를 참고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최치원」은 같은 모티프를 가진 중국소설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며 최치원이란 역사적 실제인물의 傳記적 행적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정도와 범위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최치원」을 한국 고전소설의 첫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본문에서 진행한 중국소설과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은 한국 고전소설의 형성이 한자문화권의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 參考文獻

- 문흥구, 『수이전』 逸文 <최치원>의 재고찰, 『고소설연구』 제6집(국학자료원, 1998.12)
- 박일용, 「<최치원>의 형상화 방식과 남녀 주인공의 성적, 사회적 욕망」, 『한국고전연구』 23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11.5)
- 박희병, 「한국 고전소설의 발생 및 발전단계를 둘러싼 몇몇 문제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제17집, 1992
- 李劍國, 崔桓, 「<新羅殊異傳>崔致遠本考」(『중국어문학』, 1999.6, 289-325쪽)
- 劉廣銘, 「<仙女紅袋>故事: 原型與流變」,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27권4기(2004.7)
- 이상구, 「나말여초 전기의 특징과 소설적 성취 -唐代 志怪 및 傳奇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배달말』 30(배달말학회, 2002)
-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돌베개, 2005)
- 田英宣, 「紙上畫魂, 情曲現實- 唐代人鬼戀小說創作心理探微」, 『五邑大學學報(社會科學版)』 10권3기(2008.8)
- 조수학, 「수이전의 저술자 및 문체고」, 『한민족어문학회』 17집(1990.6)
- 조수학, 「최치원전의 소설성」, 『영남어문학』 2집 (영남대학교국문과, 1975)
- 曾禮軍, 「『太平廣記』 人鬼遇合故事의主題類型與文化蘊涵」,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제15권제4기, 2013.8,
- 차용주, 「쌍녀분 설화와 유선굴과의 비교연구」(어문논집 23, 고려대, 1982)
- 崔末順, 「唐傳奇與辭賦關係之考察」(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系碩士論文, 1997.6)
- 한영환, 「최치원전과 유선굴의 비교연구」(인문과학연구 7, 성신여대, 1987)

## Abstract

### A Comparative Analysis of Choi ChiWon and Chinese Stories of Coupling Human and Ghost

Tseng, Tienfu

This article takes into account the cultural similarities and influences between China and Korea. Into this context, it posits the biographical elements of Choi ChiWon based on Choi ChiWon's study in the Tang Dynasty. It examines whether the author of Choi ChiWon borrowed the motif of coupling human and ghost, widely circulates in China. And its relation to two Chinese novels, similar in narrative form and characterization, is analysed.

The Chinese Stories of coupling human and ghost, transmitted from the ancient times, are mainly includes in Extensive Records of the Taiping Era, with which Choi ChiWon is comparatively analysed. This attempt is expected to suggest the origin of Choi ChiWon, and subsequently a new opinion about the production of Korean Narrative Literature. Furthermore, it may provide an opportunity to find when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Chinese and Korean Literature began to be formed.

**Key words** : Choi chiwon, Coupling human and ghost, Taipingguangji, Lingguizhi, Classical novel

투 고 일 : 2018. 1. 10. / 심 사 일 : 2018. 1. 15.~ 2018. 2. 15. / 게재확정일 : 2018. 2. 20.